



양님의 글은 저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듯 합니다~

사람은 깊고 얕음, 또는 크고 작음을 떠나 성장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
과거의 모자람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!

(그 모습또한 양님 일테니까요^^)

원래 무지가 더욱 무서운 거라잖아요!

이미 과거의 모자람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.

오랜 친구분들과 행복한 시간 공유 감사해요 :)

-SD